

마이산 '연인의 길' 조성

진안군, 만남존·뽀뽀존·하트존·프로포즈존 등 정비완료 예정

진안군은 지난 16일 마이산 탐방로인 연인의 길 정비를 내달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 유일의 부부봉인 마이산 북부에 위치한 연인의 길은 연인들이 사랑을 싹틔우기 좋은 곳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올 연말까지 31억원을 들여 정비 공사를 추진 중이다.



진안군은 지난 16일 마이산 탐방로인 연인의 길 정비를 내달 완료할 예정이다.

연인의 길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여유 부지에 연인을 테마로 한 7곳의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각 공간마다 남녀의 만남부터 연인으로 발전단계까지 상징하는 만남 광장? 스마일존? 포옹존? 뽀뽀존? 키스존? 하트존? 프로포즈존 으로 이름 짓고 해당 조형물과 동상을 설치하고 있다.

기존 연인의 길은 전기자동차 통행과 마이산을 찾는 탐방객의 보행로가 구별되지 않아 통행과 보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이번 정비 공사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연인의 길 야간 산책과 관광을 위해 경관 가로등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에 더욱 신경 썼다.

연인의 길 정비가 완료되면 가위박

물관, 명인명품관, 생태공원, 사양제수변공원, 역사박물관, 미로공원, 마이동농촌테마공원, 산악초타운, 홍산스카 등 마이산북부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오래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이산의 신비로운 매력에 스토리텔링을 더한 이색 공간 연출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자연이 준 선물인 마이산과 함께 마이산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 제1의 관광지가 되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TBN 전북교통방송 개국 기념 공개방송

23일 장수 한누리전당 산디관

이달 23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TBN전북교통방송 팔공산중계소 106.1MHz 개국 기념 공개방송이 개최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공개방송에는 조영구의 사회로 남진과 조항조, 현숙, 김용민, 우연이, 나미애 등 초대 가수 10여명이 무대에 올라 축하 공연을 펼친다.

공연은 무료로 펼쳐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전주전파관리소의 준공감사에서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TBN 전북교통방송 팔공산중계소는 장수군과 무주, 진안, 임실 등 동부 산악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라디오 청취가 어려웠던 지역의 난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따라 장수지역에서도 전북교통방송은 주파수 106.1MHz를 통해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물은 생명이자, 복지"

"수돗물 질 개선하고 보급률 높여 물 복지 실현" 촉구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민 모두가 공평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각 마을의 지하수에서는 검은 물이 나오고, 상수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이물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시내권조차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필터를 사용하고, 식수와 아이 목욕물은 생수를 구입해 사용하는 등

물에 대해 불안감이 크다"고 자료 사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은 무주읍 97.6%, 설천면 88.7%, 안성면 81.4%, 적상면 60.5%, 무풍면 38%, 부남면 22.3%이다. 무주, 설천, 안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남과 무풍, 적상은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다"면서 "깨끗한 물에 있어서 지역 간 불균형,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평한 물 보급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물은 복지이고, 복지의 첫 째가 물"이라고 생각한다. 임시방편적, 땀질식 처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무주군의 물 백년대계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5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설해대책 발 빠른 대처

내년 3월 15일까지 대비

무주군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내년 3월 15일까지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청내에 설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48명의 제설요원과 습염식 모래살포기 등 친환경 제설장비를 포함한 135대의 제설장비를 확보해 인명과 재산보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지난 16일까지는 모래 225톤을 비롯해 모래주머니 2만 개를 관내 지방도와 군도, 마을안길과 위험도로 500여 곳에 배치했으며, 각 읍면에서는 마을에 배부된 청소차와 트랙터 부착용 제설 삽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한편, 무주군에는 총 250곳에 제설함이 설치돼 있으며 모래 2,000㎡를 비롯해 염화칼슘 200톤, 소금 300톤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올해 친환경제설용 염화칼슘 130톤을 비롯해 소금 400톤 등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무주군 건설과 박현우 건설행정 주무관은 "눈이 내리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용 모래와 염화칼슘 등 자재와 장비 점검, 보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스키시즌도 곧 시작이 되는 만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하며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중순 진행했던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간마을 고립 예상 지역, 눈사태 위험구간에 대한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지역·구간별 특성에 맞는 제설을 진행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내년 3월 15일까지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일본 규슈대학, 진안군 3년째 방문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 수집

마을만들기 1번지인 진안군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학습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 일본 규슈대학 관계자가 3년째 진안군을 방문했다.

마을만들기와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명으로 연구진을 꾸려 방문한 규슈대학 관계자들은 마을만들기 주간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안군의 다양한 활동들을 공유했다.

연구진들은 화동마을과 원원정마을, 포동마을의 각기 다른 유형의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사례에 대해 학습했다.

진안군 담당자에게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시스템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등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까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했다.

규슈대학 관계자는 "일본의 마을만들기와 다른 형태의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진안군을 방문하겠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마련

장수군이 구인·구직자간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장수군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장수군민회관에서 '일자리 잡(job)아! 인재도 잡(job)아!' 라는 주제로 장수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장수군과 장수군 로컬 JOB센터,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관내 구인·구직자 간 현장서류와 면접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서는 관내 소재 11개 업체가 참여하며 간접 채용 방식으로 구인, 구직 희망자는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박람회에서는 직업심리검사와 취업컨설팅, 장수군 각종 구인정보 제공 등 구인·구직자에게 부대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군 로컬JOB센터 최민강 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장수지역의 고용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협의회

무주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용 농가의 제조·유통판매 법안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가공창업교육(기초·심화반)과 조식화관학교 이수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판매법인 조직화 추진 방안과 △만들봉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원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상표 및 포장용기, 포장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농업인들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생산한 가공품들도 하루빨리 시판이 돼서 만들봉농·특산물의 명성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판매조직 법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만큼 농가들과 센터가 합심해서 가공품 신화도 만들어 봤을 좋겠다"고 전했다.

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495㎡ 규모로 조성된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습식가공실과 건식가공실로 구성이 돼 있으며 49종의 기계 설비를 갖추고 사과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미자, 딸기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잼, 증 등을 생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영국저지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